

# 성인자녀관계망이 농촌단독가구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오 영 은 · 이 정 화  
전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 The Effect of Adult-Children Support Network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Single and Couple Elderly Households in Rural Areas

Oh, Young Eun · Lee, Jeong Hwa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adult-children support network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single and couple elderly households in rural areas. Adult-children support networks include both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476 participants, who are older than 60 years old, living in rural areas, were se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average degree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ural elderly was high. Emotional support from adult children was higher than economic or instrumental support. In the case of the single elderly households, adult children's economic support was the strongest variable a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case of the couple elderly households, adult children's emotional support had the greater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he single and couple elderly households in rural areas were discussed.

Key words: rural elderly,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upport network,  
adult children's network, household type

## I. 서론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훨씬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통계청(2010)에 따르면 총 농가 인구 중 14세 이하 인구 비중이 2005년 9.8%에서 2010년 7.9%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2005년 29.1%, 2009년 34.2%, 2010년 35.3%로 증가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자비율 10.6%(통계청 200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지속적인 젊은 세대의 이촌향도는 부모자녀 간 지리적 분리와 심리적 사회적 분리를 초래한 가운데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등 농촌사회의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는 변화해왔다. 우리나라 읍면부의 노인 가구유형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 독거가구 17.8%, 1세대가구 31.0%, 2세대가구 21.8%, 3세대 이상 가구 28.6%였던 것이 10년 후인 2005년에는 독거가구가 23.0%, 1세대가구의 경우 40.6%, 2세대 가구 20.4%, 3세대이상 가구 15.6%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전통적 가족형태였던 2세대 또는 3세대의 직계가족이 와해되고 노인단독가구 즉, 자녀세대가 없는 노인부부가족과 독거노인이 점증하는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sup>1)</sup>

농촌의 소가족화,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자녀와 별거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과 자녀와의 연락이나 접촉빈도가 낮아지는 등 양적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도 소원해지는 등 질적 관계에서도 많이 변화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감소하였다.

실제로 노인은 부양자의 지위에서 피부양자의 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Achley 2004). 노년기에 퇴직, 배우자의 사망, 친구의 죽음이라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심리적 충격을 받으며 결혼, 취업 등으로 인하여 자녀가 모두 부모의 곁을 떠나고 노부부만 남게 되는 빈둥지(empty nest)시기에 자녀에게 제공받는 지지가 극히 제한되면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많은 노인들이 슬픔, 불면증, 식욕상실, 체중감소,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저하, 불안, 우울, 분노, 비통,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가 증가한다고 한다(오인근 등 2009; 유광욱·원유병 2010). 이러한 노인의 어려움은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 하고, 사회적으로 노인부양과 보호 문제를 심각하게 한다. 특히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경제적, 의료적, 사회적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농촌노인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나 심리적 복지감은 도시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2005). 이 때 인간의 애정적 욕구의 원천인 가족은 노인과 정서적인 지지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노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원이 된다(이준상 2008). 특히 한국의 노인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족 중심적인 사회관계망을 가지며, 가장 핵심적인 지지 또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이다(박경숙 2000; 이해자·박경애 2009). 특히 건강상태가 취약한 노인, 그리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에게 성인자녀는 부양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이며 현실적으로 가장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인자녀는 경제적 부양, 신체적 부양, 심리적 부양 등의 주된 부양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과 서로 지지를 주고 받는 호혜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물질적, 도구적,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1) 통계청이 2011년7월에 발표한 '2010 인구 주택 총조사 가구·주택부문 전수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1,733만 9,000가구 중 2인 가구의 비율이 24.3%인 420만 5,000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 비율은 1990년에는 13.8%였던 것이 1995년 16.9%, 2000년 19.1%, 2005년 22.2%로 꾸준히 높아졌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유형이던 4인 가구비율은 전체의 22.5%인 389만 8,000가구로 2005년의 27%보다 4.5%포인트 감소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인 가구의 경우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의 가구 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인가구도 2005년보다 30%가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자식세대와 떨어져 사는 노부부 혹은 홀몸 노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Morgan 등 1991).

지금까지 성인자녀관계망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사회적관계망 속에서 성인자녀관계망을 살펴본 연구들이 많이 있다. Rowe & Kahn(1997)은 노년기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여 노인은 친구, 이웃 뿐 아니라 자녀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신체적 건강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Morgan(1988)은 관계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망 성원간의 친밀감이라고 하였으며, 자녀는 노인에게 중요한 심리적 지원자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사회적관계망으로부터의 지원은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생활만족도,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민기채 2008; 안경숙 2005; 이정화 2003; 최정아·서병숙 1992; Ward et al. 1985).

또한 노인의 가구유형은 일상의 모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적 특성이 된다. 가구유형은 구성원 각자가 속한 사회의 세대관계 및 가족에 대한 문화적 기대와 규범, 사회적 경제적 여건 그리고 인구학적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가구유형이 노인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이 단독세대에 비해 정신건강이 더 높다(권중돈·조주연 2000; 오승환·윤동성 2006). 또한 노인 독신가구의 경우는 노인부부가구보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안경숙 2005; Hobbs & Damon 1996)고 하였다. 이처럼 농촌지역 노인의 삶의 질은 가구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노인에게 사회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성인자녀관계망은 농촌노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성인자녀의 지원이 노인의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농촌노인의 가구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성인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단독가구 즉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성인자녀의 지원이 이들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노인의 사회적관계망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 연구들은 사회지원망(social support network)의

구성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노인의 정신건강이나 행복감,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김영범·박준식 2004; 이호성 2005)하거나, 사회지원망이나 사회적관계망 자체를 연구(박경숙 2000)하였다. 특히 한국의 노인들은 가족의 유대관계가 가치체계에서 가장 우선적이므로 가족관계망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다소 진행되었다(김영범·박준식 2004; 우원규·홍소영 등 2006; 이해자·박경애 2009).

하지만 공식적 지원이 미흡한 농촌지역 특성상 사적 부양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성인자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관계가 농촌노인의 생활만족감이나 심리적인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준(원영희 1995; 유성호 1997; Glenn & McLanahan 1981)에도 불구하고 특히 성인자녀관계망이 단독가구 농촌노인의 심리적인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농촌노인 가구 유형별로 성인자녀관계망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관계망 중에서 성인자녀관계망에 주목하여 단독가구 농촌노인의 가구유형, 즉 독거노인과 부부동거노인가구가 성인자녀관계망과의 구조적 특성, 기능적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성인자녀관계망이 농촌노인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구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 지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변화하는 농촌노인의 가족구조별 가족 및 지역사회가 담당할 역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노인의 성인자녀 관계망의 특성은 이는 농촌노인의 단독가구유형(독거, 부부 동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성인자녀관계망의 특성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는 농촌노인 단독가구유형(독거, 부부동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성인자녀관계망

성인자녀관계망은 사회적관계망에 속하는 하위

개념이다.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원과 같은 개념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이론적 정의가 다르다. 사회적 관계망은 각 사람마다 인간관계의 연결고리이며, 관계의 강도(strength)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기회와 제약(constraint)의 정도가 좌우되므로 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지지는 실제 받은 지지(received social support)와 예상되는 도움(perceived social support)으로 나누어 정의되며 그 내용은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사교적 지지 등이 해당된다(손용진 2010; 이해자·박경애 2009; 진미정 등 2009). Antonucci 등(1996)은 사회적관계망(social network)을 ‘각 개인이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로 정의하고, 사적 관계망과 공적관계망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사적 관계망의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친척, 친구, 지인, 이웃이며, 공적 관계망은 종교단체, 지역모임, 우체국, 경비원,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성인자녀관계망은 이러한 사회적관계망 중에서 성인자녀와의 관계망이고, 본연구에서는 특히 ‘노인이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성인자녀와의 유대관계’로 정의한다. 이는 성인자녀관계망이라고 해서 모든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다루기가 어렵다는 점과, 노인에게 성인자녀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이 친밀감을 느끼는 성인자녀가 있는지, 그 자녀와 어떠한 지원교환이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성인자녀 관계망에 초점을 두고 단독가구 농촌노인들에게 따로 사는 성인자녀관계망의 구조와 기능이 미치는 영향만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에 성인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친구, 이웃이 모두 포함된 사회적 관계망(박광희·한혜경 2002; 소광섭 2007; 손신영 2006; 오승환·윤동성 2006; 이해자·박경애 2009)연구와는 다르다.

개인은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특정관계망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 의존성이 증가하는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 사회적 특성, 사회적 지지의 양과 질은 노인의 사회적 적응과 통합, 삶의 만

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노년기에는 퇴직, 건강 약화,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망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그에 따라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 또한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지지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오히려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지지가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된다(김기태 2002). 이처럼 노년기에 공식적 사회관계망이 축소되기 때문에 비공식적 관계망의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의 노년층은 국가나 봉사조직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가족과 이웃이라는 비공식적 관계망 내에서 삶의 욕구와 문제들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비공식적 관계망의 지지는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 비공식적 관계망 중에서도 현재 노인계층이 ‘유일한 삶의 안식처’로 규정해 왔던 가족(권명아 2000)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지원망이다. 지금까지 가족은 노인을 위한 장기적인 보호(long term-care)의 유일한 원천임과 동시에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숨겨진 희생자”이기도 했다(양재연 2007). 그리고 지금도 부양의식, 효 의식으로 인하여 노인 부양의 일차적 책임자가 자녀라는 인식이 남아있다. 실제로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중요한 물질적, 도구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는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권중돈 2004).

일반적으로 사회관계망은 구조적측면, 기능적측면으로 나누어 연구되어 왔다(송지은 2006; 원효중 1997; 이해자·박경애 2009). 본 연구에서도 성인자녀관계망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성인자녀관계망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자녀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이란 노인과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기본 형태 즉, 세대간 상호작용인 전화빈도와 방문빈도, 방문빈도의 객관적인 측면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구조적 특성을 관계망의 크기, 빈도, 거리, 밀도(density), 안정성(stability)등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김영범·박준식 2004; Litwin 1995; Wenger 1989). 과거에 Rosow(1967)가 자녀와의 잦은 접촉이 노인의 사기와 관련이 있다고 한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원망의 구조적 특성과 노인의 심

리적 복지감과의 정적관계를 보고해왔다.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변수를 적용하여 ‘관계소원형’, ‘자녀손자녀 중심형’, ‘가족의존형’, ‘부부중심형’의 네 가지 상이한 가족 관계망 유형을 나누기도 하고(이혜자·박경혜 2009), 구조적 특성 중 지원망의 크기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기도(최정아·서병숙 1992)했다.

한편 성인자녀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은 성인자녀와 노인 사이에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 즉, 세대 간의 정서적 유대, 친밀감 등의 기능적 관계를 의미하며, 경제적지지,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도 성인자녀 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을 경제적지지, 정서적지지, 도구적지지로 구분하였다. 경제적인 지지란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거나, 급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성인자녀의 경제적인 지지가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에서는 성인자녀의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인 지지가 증가했으며 이들의 경제적 지지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영범·박준식 2004; 김은희 2004; 손용진 2010). 그러나 빈곤층 노인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의 성인자녀도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서적지지만 성인자녀가 노부모가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말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현대와 같이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박경민 1994; 정태연 2004; Dean et al. 1989). 도구적 지지는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집안일을 거들어 준다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의 동거부양이 급속도로 적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구적지지 정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부양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특히 이러한 성인자녀로부터의 도구

적지지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된다(안경숙 2005; 이은주 2007).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농촌의 독거노인과 부부동거가구, 단독가구 유형에 따른 성인자녀관계망의 구조적특성과 기능적특성 각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란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안녕, 복지, 만족, 행복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행복감이나 생활만족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신기영 1998). 심리적 복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심리적 복지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양면을 함께 보기도 하고, 긍정적 측면만을 보기도 하였다. 먼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본 입장에서 심리적 복지는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개인의 경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의 삶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장재정 1987)고 본다. 이렇듯 심리적 복지는 긍정적 복지와 부정적 복지 두 차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두 정서를 비교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체적 판단을 심리적 복지라고 하여(Andrew & Withey 1976; Bradburn 1969; Ryff & Keyes 1995) 심리적 복지감을 행복감과 고독감 두 측면을 함께 보기도 하고(이정화 등 2003), 행복감과 우울감의 두 차원(이정화·한경혜 2008)으로 보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심리적 복지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입장이 있다. Bradburn(1969)는 심리적복지감을 자신의 생활에 대해 스스로 공헌하는 행복이라고 하였다. Diener(1984)는 주관적 복지를 심리적 복지와 동의어로 사용하여 행복감, 생활만족도, 긍정적 정서를 포함시켰으며, Kopp와 Ruzicka(1993)도 심리적 복지를 숙달감과 기쁨으로 보고 일상생활에서 성취나 기쁨이 높은 경우 심리적 복지가 높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이

회정과 이숙현(1995) 역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심리적 복지로 정의하였다. 신기영과 옥선화(1997)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복지감을 한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측정해주는 지표로서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수 있는데 이는 삶의 질, 생활만족도, 행복감과 같은 감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감을 행복감이라는 긍정적인 정서로 측정하였다. 노인의 경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측면의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적인 건강상태나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는 반면, 성인자녀의 지원은 보다 긍정적인 정서인 행복감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도시 노인에 비해 낮은 편이다. 실제 농촌과 도시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농촌노인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도시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2005; 손신영 2006). 농촌의 노인인구비는 높으나 노인이라는 위치와 지역적으로 경제적, 의료적, 사회적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고(노대명 2009; 모선희 1999; 이정화 등 2003) 또한 농촌에 남아있는 노인은 자녀와 함께 살 기회 뿐 아니라 가까이 살 기회도 크게 낮아 성인자녀로부터 동거부양지원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박경숙 2000)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단독가구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어떠한지,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이 성인자녀의 지원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3. 노인의 성인자녀관계망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성인자녀가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Glenn과 McLanahan(1981)에 의하면 자녀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의 노후생활만족감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네덜란드 노인을 대상의 Groenou와 Tiberge(1997)의 연구결과에서도 노인에게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비공식적 지원체제이지만 배우자

가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자녀가 가장 중요한 비공식적 지원집단으로 나타난다. Quinn(1983)은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건강 다음으로는 만족스러운 부모자녀 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Fingerman과 Birditt(2003)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망은 바로 가족과의 관계망이라고 하였다. 고령기 초반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나이가 들어 노년기 후반부로 갈수록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하여 성인자녀가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고령자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에서, 특별히 부모자녀관계는 상호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관계로서 이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결속이나 질적인 관계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권중돈·주주연 2000; 김태현·임선영 2004; 손덕순·이홍직 2006; 윤종희·이혜경 1997)고 한다. 따라서 단독가구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성인자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가, 어떤 지지를, 얼마만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지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4. 노인의 가구유형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세대 간 부양 규범 및 가족에 대한 규범이 급속도로 변화되면서 전통적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혼재하고 있다(한경혜·윤순덕 2001). 농촌은 성인자녀의 교육, 취업을 위한 지리적 이동으로 부모-자녀 세대가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더 낮아지고 더불어 노인 부부가구, 독거노인가구와 같은 노인단독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자녀관계망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으나 농촌의 인구학적 특성, 세대관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성인자녀관계망이 농촌노인, 특히 성인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단독가구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농촌가구 독거노인이 부부동거가구보다 삶의 질이 낮고 정신건강수준도 낮다(김주희·정영미 2002; 이정숙·이인수 2005)는 연구결과들은 성인자녀관계망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이들의 가구유형에 따라 즉, 노인 부부가족인지, 독거노인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을 가정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단독가구는 성인자녀 없이 노인부부만이 함께 살거나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가구를 말한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관계망이 농촌노인의 심리적인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단독가구유형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조사는 농촌노인들의 성인자녀와 어떻게 교류하는지 살펴보고, 성인자녀관계망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2009년 1~2월과 7~8월에 전라북도 S군 내 6개면, 26개 마을 60세 이상 노인 5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마을의 협조를 얻어, 훈련받은 조사원이 마을 경로당, 마을 어르신 집을 가가호호 방문,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단독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자녀관계망을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거나, 따로 사는 자녀가 없거나 노인 단독가구가 아닌 대상자의 질문지와, 응답이 부적절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따로 사는 결혼한 성인자녀가 있는 단독가구 노인의 자료 476부를 분석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성인자녀관계망

성인자녀관계망을 측정함에 있어서 ‘성인자녀’는 다수의 기혼성인자녀 중에서 노인이 가장 친

밀하다고 느끼는 성인자녀를 의미한다.

성인자녀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은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성인자녀와 농촌노인의 거주근접성, 방문빈도, 전화통화 빈도로 구성하였다. 거주근접성의 경우, ‘면내’ 1점, ‘군내’ 2점, ‘도내’ 3점, ‘타도’ 4점으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클수록 멀리 사는 것을 의미한다. 방문빈도와 전화통화 빈도의 경우, ‘거의 하지 않음’ 1점, ‘일 년에 몇 번’ 2점, ‘한 달에 한두 번’ 3점, ‘일 주일에 한두 번’ 4점, ‘거의 매일’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클수록 방문빈도가 잦음을 의미한다.

성인자녀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은 선행연구들(이형실 1999; 한경혜·홍진국 2000)을 참고로 하여 성인자녀의 경제적지지, 도구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의 3영역에서 각 영역별 2문항 씩 총 6문항으로 이루어지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자녀가 제공하는 지원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각각 경제적지지 .68, 정서적지지 .76, 도구적지지 .68로 나타났다.

##### 2)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 척도는 선행연구(신기영 1998; 윤성은 2002; Rosenberg 1979)를 참고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인 복지감을 알아보는 문항은 ‘생활에 활력이 넘친다’, ‘기분이 차분하고 평화롭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 ‘건강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의 총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9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코딩(coding)과정을 거친 후 통계프로그램 SPSS 19.0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주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인자녀관계망의 특성,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살펴보고 이를 가구유형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 변인의 특성에 맞춰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성인자녀관계망 특성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단독가구 농촌노인의 가구유형별 분포를 보면,

부부동거노인이 64.9%였고, 독거노인은 35.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노인이 180명으로 37.8%, 여성노인이 296명으로 62.2%를 차지하였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독거가구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부동거가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p < .001$ ,  $\chi^2 = 63.23$ ).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70대가 50.8%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60대가 34.2%, 80대 이상이 14.9%의 순이었고, 평균연령은 72.48세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경우,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by household type

Variables	Category	Total	Single household	Couple household	N(%)
Sex	male	180(37.8)	23(13.8)	157(50.8)	63.23***
	female	296(62.2)	144(86.2)	152(49.2)	
Age	60s	163(34.2)	32(19.2)	131(42.4)	42.52***
	70s	242(50.8)	90(53.9)	152(49.2)	
	80s +	71(14.9)	45(26.9)	26(8.4)	
	Mean	72.48(6.42)	75.13(6.52)	71.05(5.91)	
Educational level(years)	not educated	161(45.4)	75(44.9)	86(27.8)	34.50***
	1~3 years	37(10.4)	9 (5.4)	28(9.1)	
	4~6 years	126(35.5)	20(12)	106(34.3)	
	7 years +	31(8.7)	6(3.6)	25(8.1)	
	Mean(year)	3.19(3.49)	1.79(3.19)	3.82(3.45)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15(3.3)	6(3.6)	9(2.9)	4.47
	not so good	167(37.0)	55(32.9)	112(36.2)	
	average	84(18.6)	33(19.8)	51(16.5)	
	good	139(30.8)	48(28.7)	91(29.4)	
	very good	46(10.2)	10(6.0)	36(11.7)	
	Mean(range: 1-5)	3.08(1.10)	3.00(1.05)	2.89(1.13)	
Subjective economic status	top	11(2.5)	3(1.8)	8(2.6)	16.96***
	mid-top	139(31.2)	35(21.0)	104(33.7)	
	mid-Low	245(54.9)	84(50.3)	161(52.1)	
	low	51(11.4)	29(17.4)	22(7.1)	
	Mean(range: 1-4)	2.25(.68)	2.08(.71)	2.33(.65)	
Number of Adult children	1-2children	24(5.0)	10(6.0)	14(4.5)	42.52***
	3-4children	171(35.9)	50(29.9)	121(39.2)	
	5-6children	222(46.6)	82(49.1)	140(45.3)	
	7children +	59(12.4)	25(15.0)	34(11.0)	
	Mean(childrens)	4.85(1.49)	4.98(1.59)	4.78(1.43)	
Total		476(100)	167(35.1)	309(64.9)	

p\* < .05, p\*\* < .01, p\*\*\* < .001



70대와 80대가 60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부부동거가구의 경우 60대와 70대가 80대에 비해 더 많아 부부동거가구가 독거가구 노인보다 더 젊은 경향을 보였다( $p<.001$ ,  $\chi^2=42.52$ ).

교육년수를 보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4년~6년이 35.5%로 나타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중학교 이상 학교를 다닌 응답자는 약 9%에 불과하였다. 평균 교육년수는 3.49년이었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노인 부부 가구유형이 독거가구유형 비해 더 젊고 교육을 더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p<.001$ ,  $\chi^2=34.50$ ).

주관적 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하지 못함이 3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건강함 30.8%, 보통 18.6%, 매우 건강함 10.2%, 매우 건강하지 못함 3.3% 순이었다. 전체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은 3.08점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건강상태를 보통으로 지각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가구유형 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경제수준을 보면 중하가 54.9%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중상 31.2%,

하 11.4%, 상 2.5%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약 85%가 중간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관적 경제수준의 평균은 총점 4점 만점에 2.25점이었다. 가구유형별로는 독거노인의 경우 부부동거노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p<.001$ ,  $\chi^2=16.96$ ).

자녀수를 살펴보면, 5-6명이 44.6%로 가장 많은 가운데 평균자녀수는 4.85명이었다. 가구유형별로는 독거노인의 자녀수가 부부동거가구 노인의 자녀수보다 많은 경향을 보였다( $p<.001$ ,  $\chi^2=42.52$ ).

#### IV. 연구결과

##### 1. 농촌노인 성인자녀관계망

##### 1) 농촌노인의 가구유형에 따른 성인자녀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농촌노인의 성인자녀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은 거주근접성, 방문빈도, 전화통화 빈도로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Table1 2에 제시하였다.

먼저 거주 근접성의 경우, ‘타도/해외’에 사는 비율이 7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Table 2.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rural elderly's adult children network by household type

Variables	Category	N(%)		
		Total	Single household	Couple household
Residence of proximity	same village	23(4.9)	9(5.4)	14(4.5)
	same county	30(6.3)	11(6.5)	19(6.1)
	same city	86(18.4)	33(19.6)	52(16.8)
	another city/abroad	329(70.3)	107(63.7)	220(71.2)
Frequency of visits	hardly ever	13(2.8)	7(4.2)	6(1.9)
	several times a year	262(55.9)	84(50.0)	171(55.5)
	once or twice a month	110(23.1)	34(20.2)	71(23.1)
	once or twice a week	70(14.9)	31(18.5)	39(12.7)
	almost everyday	14(3.0)	6(3.6)	8(2.6)
Frequency of phone calls	hardly ever	13(2.8)	7(4.2)	10(3.2)
	several times a year	9(1.9)	2(1.2)	7(2.3)
	once or twice a month	85(18.2)	26(15.5)	58(18.8)
	once or twice a week	202(43.3)	72(42.9)	124(40.3)
	almost everyday	158(33.8)	55(32.7)	98(31.8)

p\* $<.05$ , p\*\* $<.01$ , p\*\*\* $<.001$

‘도내’ 18.4%, ‘군내’ 6.3% ‘면 내’ 4.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성인자녀가 다른 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70% 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먼 거리에 자녀가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부모와의 대면접촉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자녀의 방문빈도를 살펴본 결과, ‘일 년에 몇 번’이 5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한 달에 한두 번’이 23.1%, ‘일주일에 한두 번’이 14.9%, ‘동거나 거의 매일’이 3.0%, ‘거의 하지 않음’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년에 몇 번’ 이하로 만나는 경우가 거의 60%에 이르고 있다는 것으로서, 타도에 있는 자녀의 경우 명절이나 특별한 날 일 년에 몇 번 방문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화통화 빈도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한 두 번이 43.3%, 거의 매일이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한 달에 한 두 번이 18.2%, 거의하지 않음 2.8%, 일 년에 몇 번 1.9%, 순으로 나타나 전화통화는 비교적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농촌노인 가구유형에 따라 성인자녀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노인의 가구유형에 따른 성인자녀관계망의 기능적 특성

농촌노인이 따로 사는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 지를 파악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노인은 성인자녀에게 정서적지지(M=3.30, SD=.70), 경제적지지(M=2.52, SD=.87), 도구적지지(M=2.39, SD=.89)의 순으로 제공받고 있었다. 점수범위가 1점부터 4점까지이고 중앙값이 2.5점인 것을 감안 했을 때, 정서적지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도구적 지지와 경제적 지지는 보통수준으로 지각하였다.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에서는 가구유형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인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지는 독거가구(M=2.63, SD=.88)가 부부동거가구(M= 2.46, SD=.86)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가구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1.97, P<.05). 노부모가 홀로된 경우 따로 사는 성인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rural elderly's adult children network by household type (M(S. D.))

Variables	Total	Single household	Couple household	t
Economic support	2.52(.87)	2.63(.88)	2.46(.86)	1.97*
Emotional support	3.30(.70)	3.24(.73)	3.33(.68)	-1.40
Instrumental support	2.39(.89)	2.43(.95)	2.37(.86)	.72

p\* $<$ .05, p\*\* $<$ .01, p\*\*\* $<$ .001

3) 농촌노인의 가구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 경향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전체 심리적 복지감은 총 5점 만점에 3.31점으로 중간 값 이상보다 높아,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복지감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 복지감수준은 부부동거(M=3.42, SD=.78) 가구가 독거(M=3.11, SD=.76)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나 독거노인이 부부동거노인보다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t=-4.24, P<.01).

Table 4. Rural elderly's psychological well-being by household type (M(S. D.))

Variables	Total	Single household	Couple household	t
Psychological well-being	3.31(.78)	3.11(.76)	3.42(.78)	-4.24**

p\* $<$ .05, p\*\* $<$ .01, p\*\*\* $<$ .001

2. 성인자녀관계망이 단독가구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성인자녀관계망이 단독가구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회귀모델에 투입된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 때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변수들이 모두 .59 이하로 나타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인자녀관계망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유형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독거노인의 경우, 모델 1을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은 독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18%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유일하게 의미 있는 변수이면서 설명력이 매우 높았다. 즉, 건강상태가 좋다고 지각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다. 모델 2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에 성인자녀관계망 변인

을 추가한 결과, 27%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더해 전체 설명력은 45%가 되었으며, 추가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06, P<.001). 성인자녀관계망 특성 변인 중 농촌독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전화통화 빈도와 성인자녀의 경제적 지지였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성인자녀의 경제적지지가 많을수록, 성인자녀의 전화통화 빈도가 높을수록 독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독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주관적 건강상태(β=.39, p<.001)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며, 그 다음 영향력의 크기는 성인자녀의 경제적 지지(β=.33, p<.001), 성인자녀의 통화빈도(β=.19, p<.01)순 이었다.

주관적 건강 다음으로 성인자녀의 경제적 지

Table 5. The effect of adult children's network on rural elderly's psychological well-being by household type

Variables	Single household		Couple household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β)	B(β)	B(β)	B(β)
<b>Demographic characteristics</b>				
Sex	.10(.05)	.04(.02)	<b>-.22(-.15*)</b>	<b>-.22(-.15*)</b>
Age	.01(.07)	.01(.08)	.00(.00)	-.00(-.01)
Educational level	-.03(-.13)	-.01(-.03)	-.02(-.07)	-.02(-.08)
Health status	<b>.31(.41***)</b>	<b>.30(.39***)</b>	<b>.26(.37***)</b>	<b>.25(.36***)</b>
Economic status	.13(.12)	-.05(-.04)	.20(.17**)	.17(.15**)
Number of children	.02(.04)	-.02(-.03)	-.03(-.06)	-.04(-.08)
<b>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dult children network</b>				
Residence of proximity		.03(.04)		.01(.01)
Frequency of visits		.00(.00)		.01(.01)
Frequency of phone calls		<b>.14(.19*)</b>		.05(.05)
<b>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dult children network</b>				
Economic support		<b>.30(.33***)</b>		.02(.03)
Emotional support		.09(.09)		<b>.15(.13*)</b>
Instrumental support		.17(.21)		.05(.05)
C	1.06	-.58	2.67	2.04
F	3.53**	6.06***	11.04**	6.33**
R <sup>2</sup>	.18	.45	.23	.26
ΔR <sup>2</sup>		.27***		.03

p\* < .05, p\*\* < .01, p\*\*\* < .001

지가 농촌독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이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령의 여성노인이 많고 이들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과 크게 관련된다.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농촌독거노인에게 따로 사는 성인자녀의 경제적 지원이나 전화로 묻는 안부가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부동거 노인의 경우, 모델 1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 농촌부부동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건강상태, 경제수준이었으며, 총23%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별이 남자인 경우 심리적 복지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에서 성인자녀관계망의 특성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3%가 더해져 26%가 되었으나, 추가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인자녀관계망 특성 중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지는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남자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자녀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농촌부부동거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동거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 상대적인 영향력은 건강상태( $\beta=.36, p<.001$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 $\beta=.15, p<.01$ ), 성인자녀의 정서적지지( $\beta=.13, p<.05$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동거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이 많고 배우자라는 심리적 지지와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따로 사는 성인자녀관계망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자녀관계망이 단독가구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인자녀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성인자녀관계망의 기능적 특성이 농촌노인

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단독가구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S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결혼한 성인자녀를 둔 단독가구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 성인자녀는 ‘농촌노인이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결혼한 성인자녀’를 의미한다.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함에 있어 가구유형별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대상을 자녀를 둔 노인으로 제한하여 독거노인 167명, 부부동거노인 309명, 총 47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성인자녀관계망의 일반적 경향을 알기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독거, 부부동거 각 가구유형별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성인자녀관계망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인 농촌노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성인자녀를 둔 60세 이상의 농촌노인 중 남성이 37.8%, 여성이 62.2%였고, 독거노인의 경우 남성이 13.8%, 여성이 86.2%로서 여성이 특히 더 많았다. 전체노인의 평균연령은 72.48세로 70대 초반이었는데, 독거노인의 경우 75.13세, 부부동거 노인은 71.05세로 부부동거노인이 독거노인보다 더 연령이 적었다. 교육년수는 평균 3.19년 이었는데 독거노인의 경우 1.79년, 부부동거노인은 3.82년으로 부부동거 노인이 더 교육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점수범위 1-5점에서 평균 3.08로 보통수준이었다.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우 점수범위 1-4점에서 평균 2.25로 중간수준 이하였으며, 독거노인 2.08점, 노인부부 2.33점 수준으로, 독거노인은 부부동거노인보다 자신의 경제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농촌노인의 평균자녀수는 4.85명이었다. 전반적으로 독거노인은 부부동거노인에 비해 연

령이 높고, 주관적 경제수준, 교육수준 등에서는 전반적으로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촌노인의 성인자녀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 농촌노인이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성인자녀는 타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도내, 군내, 면내 순이었다. 이는 농촌진흥청(2007)의 별거기혼자녀의 거주지에서 기혼자녀가 다른 도에 살고 있는 경우 46.6%, 같은 도의 경우 27.7%, 같은 시군이 19.9%의 순서와 유사하였다. 방문횟수는 '일 년에 몇 번'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이를 통해 농촌노인의 성인자녀는 명절이나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자녀와 전화 통화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농촌노인은 성인자녀와 주로 전화로 소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성인자녀관계망의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 보면,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지 중에서 농촌노인은 성인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노인이 타도에 사는 성인자녀로부터 받는 수혜는 정서적 지원제공, 경제적 지원제공, 도구적 지원제공 순으로 나타났다는 농촌진흥청(1996)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가 농촌노인이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결혼한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에서 가구유형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성인자녀관계망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독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주관적 건강상태만이 의미 있는 변수였던 반면, 성인자녀관계망에서는 성인자녀와의 전화통화 빈도, 성인자녀의 경제적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자녀의 경제적 지지는 독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관계망은 독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27%의 설명력을 더해 성인자녀관계망의 지

지와 접촉이 독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부부동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건강상태, 경제수준이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이들은 전체 심리적 복지감의 23%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모델 2에서 성인자녀관계망 특성을 추가했을 때, 성인자녀의 정서적지지가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전체 성인자녀관계망의 추가설명력은 약 3%였다. 부부동거노인은 독거노인에 비해 아직 젊고 사회활동도 많아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인자녀의 경제적지지 보다는 정서적 측면의 지지를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촌단독가구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성인자녀관계망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독거노인의 경우 성인자녀관계망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성인자녀의 지지 중에서 경제적 지지가 갖는 설명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는 농촌노인의 가구유형과 상관없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건강과 경제수준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통계청(2009)에 의하면 65세 이상 연령층이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문제가 42.6%, 건강문제 37.2% 순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처럼 주관적인 건강상태와 경제수준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을 상당부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 없는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본 연구대상자들은 평균연령 72세로서 고령의 노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농촌노인들은 도시노인에 비해 정년 없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더 오랫동안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부분 벼농사 중심의 소규모 농업에 치중하고 있어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형편이라는 농촌의 현실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경제적인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최근 시행된 농지연금제도<sup>2)</sup>를 이용하게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 성인자녀관계망은 농촌노인 중 특히 독거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성인자녀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자주 접촉하며 애정적인 결속을 강화한다면 농촌에 혼자 사는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화되어가고 있는 현대의 노부모 성인자녀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확장을 위해 가족과 사회의 노력 및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특히 도시에 비해 농촌의 고령화는 농촌의 노인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문제의 해결방안과 실현가능한 지역적 차원의 농촌노인복지 맞춤형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국가적 차원의 농촌복지정책을 구상함에 있어 가구유형에 따른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 독거노인은 대체로 여성이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소득도 낮은 상태에 있다. 농촌노인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특히 취약한 대상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더 시급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농촌의 독거노인들은 성인자녀로부터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교류를 하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심리적 복지감이 더 높아지는 데 실제로 이들의 성인자녀들의 약 70%가 상당히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고 일 년

에 몇 번 방문 하는 것에 그치는 등 농촌노인의 기대보다 접촉이 덜하다는 점이다. 성인자녀관계망을 통해 전화로나마 자주 교류하고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는 문제가 덜하지만 그러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돌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취약한 농촌의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는 주로 도시노인, 극빈층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복지였다. 농촌은 도시보다 고령화가 더 많이 진행되었고, 사회적, 경제적,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아주 소외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도적 복지 요구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농촌노인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서비스를 해 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도시중심의 경제논리에 농촌주민의 복지는 늘 후순위였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고령사회에 진입해있는 농촌 마을에 마을단위의 건강, 복지서비스를 도입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농촌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제는 가구유형별, 혹은 농촌사회의 공동체적 특성 및 마을 자조조직을 활용한 ‘마을단위’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성인자녀관계망의 특성이 가구유형에 따라 농촌노인의 심리적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농촌지역사회 노인들의 심리적복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농촌 일부지역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제한점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에서는

2) 2011년 1월부터 시행중인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다. 또한 농지를 상속증여 받았으나 도시에 거주하여 직접 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않거나 현재 경작중인 농지를 더 이상 자경하기 힘들어 임차인을 찾거나 하나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함으로써 안정적 농지 소유 및 관리를 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는 노인부부에게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 할 수 있고 자녀에게는 경제적인 부양부담을 덜어 주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전국 농촌을 대상으로 단독가구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성인자녀관계망 외에 우리 국가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권명아(2000) 노인 가구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사상구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중돈(2004)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회지 20(3), 61-76.

김기태(2002) 노인복지실천론. 서울 : 양서원.

김영범·박준식(2004) 한국 노인의 가족 관계망과 생활 만족도-서울 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지 24(1), 169-185.

김은희(2004)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 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주희·정영미(2002) 독거노인의 건강실태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4(1), 16-26.

김태현·임선영(2004) 가족이념, 생활교류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 9(1), 85-109.

김혜신(2003)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노대명(2009) 보건복지포럼(2009년 2월). 24-32.

농림수산 식품부(2009) Press Release. 2009.3.16. 보도자료. <http://www.mifaff.go.kr/main.jsp>.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7) 통계로 본 지역별 노인 복지현황. 27.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2005) 농촌·도시 노인의 삶의 질 비교분석. 66.

농촌진흥청(1996) 농촌노인의 생활향상을 위한 연구. 수원: 농촌진흥청. 216.

농촌진흥청(2007) 농촌생활지표조사보고서. 수원: 농촌진흥청. 133.

모선희(1999) 한국의 소외된 농촌노인. 노인복지정책연구 13('99.10), 149-184.

민기채(2008)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제공과 관계망 특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광희·한혜경(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연구 11(3), 43-61.

박경민(1994)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노년기 우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경숙(2000)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회 34(4), 621-648.

소광섭(2007) 도농복합도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연구. 노인복지연구 38, 7-30.

손덕순·이홍직(2006)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복지학회 30, 181-205.

손신영(2006)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6(3), 605-615.

손용진(2010)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2(3), 311-339.

송지은(2006)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26(3), 581-599.

신기영·옥선화(1997)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11-128.

신기영(1998)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경숙(2005) 노인부부가구, 노인 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5(1), 1-19.

양재연(2007) 치매노인 수발자의 대처능력이 수발 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영희(1995) 동·별거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15(2), 97-116.

원효중(1997) 도시핵가족 주부의 사회관계망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오승환·윤동성(200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도시, 농촌, 여촌 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 연구 32, 119-147.

우원규·홍소영·이주연·문상관·소은진·이은정·임현정·조영태·이승욱 (2006)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31(2), 55-72.

오인근·오영삼·김명일(2009)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14(1), 113-136.

유광욱·원유병(2010) 노인들의 신체활동 유무·부적정서·경제적 수준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4), 197-205.

유성호(1997) 자녀수와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후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결혼 상태에 따른 분석. 한국노년학회지 17(2), 38-49.

윤성은 (2002)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종희·이혜경(1997)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활동참여도에 따른 생활 만족도. 한국노년학회지 17(1), 289-303.

이정화·한경혜·박공주·이한기(2003)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지원망 특성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학회지 9(3), 1-7.

이은주 (2007)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숙·이인수(2005) 노년기 건강관리 행동과 사회 경제 요인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노인 복지연구 27, 231-253.
- 이정화·한경혜(2008) 농촌 조손가족의 세대관계와 손자녀 양육 조모의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회지 28(1), 177-196.
- 이준상(2008) 치매노인 가족보호제공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40: 225-248. 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83-94.
- 이형실(1999) 농촌 부부가구 노인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9(3), 109-120.
- 이혜자·박경애(2009) 농촌노인의 가족관계망 유형과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회지 29(1), 291-307.
- 이호성(2005) 도시 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 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5(3), 123-138.
- 이희정파 이수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대한 가정학회지 33(6), 25-41.
- 장재정(1987) 性役割概念에 관한 理論的 考察. 論文集. 19('87.6), 331-343.
- 정태연(2004) 노년기의 정서적지지, 외로움 그리고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4, 35-46.
- 진미정·이순형·김창대(2009) 탈북인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서울: 학지사.
- 최정아·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2(1), 65-78.
-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인구 부문) <http://www.nso.go.kr>
- 통계청(2009) 2009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0. 10. 28). <http://kostat.go.kr>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인구 부문) <http://www.nso.go.kr>
- 한경혜·윤순덕(2001) 떠난 장남, 남은 장남. 한국사회학회 34, 649-669.
- 한경혜·홍진국(2000)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12(2), 55-8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2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경제위기에 따른 긴급제도 확대방안.
- 허선영(2003) 저소득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chley RC, Barusch AS(2004). Social forces and aging (9th ed.):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Thomson: Wadsworth.
- Andrew FM, Withey S(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and London : Plenum Press.
- Antonucci TC, Sherman AM, Akiyama H(1996) Social network, support, and integration. Encyclopedia of Gerontology 2, 505-515.
- Bradburn N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Press.
- Dean A, Kolody B, Wood P, Ensel WM(1989) Measuring the communication of social support from adult 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y 44(2), 71-79.
- Diener ED(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Fingerman KL, Birditt KS(2003) Do Age Differences in Close and Problematic Family Ties Reflect the Pool of Available Relative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8(2), 80-87.
- Glenn N, McLanahan(1981) The effects of offspring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Adul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2), 409-421.
- Groenou M, Tiberge T(1997) Changes in the Support Networks of Older Adult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Cross Culture Gerontology 12, 23-44.
- Hobbs FB, Damon BC(1996) 65+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 Bureau of the Census, Current Population Reports.
- Kopp RG, Ruzicka MF(1993) Woman's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Report 72, 1351-1354.
- Litwin H(1995) The social Networks of Elderly Immigrants: A Analytic Typology. Journal of Aging Studies 9(2), 155-174.
- Morgan DL, Schuster TL, Butler EW(1991) Role reversals in the exchang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6, 278-287.
- Morgan DL(1988) Age differences in social network participation. Journal of Gerontology 43(4), 129-137.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osow I(1967) Social integration of the aged. New York : Free Press.
- Rowe JW, RL Kahn(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 433-440.
- Ryff CD, Keyes CL(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Quinn W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16, 57-73.
- Ward RA, Sherman SR, Lagory M(1985) Informal networks and knowledge of services for older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39, 216-223.
- Wenger GC(1989) Support networks in old Age: Constructing a typology. In M. Jefferys(Ed.), Growing old in 20th century. London: Routledge.